

“ 숨은 제자들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교회가 하나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본체시나’ 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에’ (생명)가 아닌 ‘프쉬케’ (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6)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 (7)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 · 人 양성의 기록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 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물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멀시로 특징 되 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486호] 2015년 12월 19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당분간 모든 정규 예배를 Youtube 서울교회 계정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1부 예배-9시, 2부 예배-11시20분, 3부 예배-오후2시에 주일예배 영상이, 주일 오후 5시에 찬양 예배 영상이 Youtube를 통해 송출됩니다.

또한, 수요일 예배는 1부-11시, 2부-오후7시, 새벽기도는 새벽 5시30분에 Youtube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01213_sermon.jpg

비록 예배당에 모여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간절한 소원의 기도와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대림절의 경건한 영성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공동체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모든 사역이 속히 회복되기를, 또한 서울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성도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강건하기를 서로가 하나 되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 ·이현주(키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병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타,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스, 알로록,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 · 홍성임(팔라우), 이재을 · 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 · 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죄와 권징 ”

■ 고전 5:1-8

사도 바울의 개혁으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양 은사 문제들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성도 개개인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까지 소송 전을 벌이는 일들도 벌어졌는데 심지어 본문에는 성적인 문제로 도덕성마저 심한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틴 루터는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및 사단과의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인 것은 맞지만 죄성이 전혀 없는 성향의 변화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결하게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로 죄와 동승하기도 하고 결별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죄 짓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악은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금기시하는 죄악으로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도 충격인데 그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에 사도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어도 이 죄는 고린도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회개하고 돌아켜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을 저지른 자를 성도의 교제 속에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소한 것이라도 죄가 우리를 이기게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때 거룩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적은 누룩과 같아도 그런 일쯤이야 하고 방치하면 온 떡 덩어리를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도록 부패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문은 한번 열기 시작하면 감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찮게 여긴다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해야 한다

성도들이라면 설혹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런 일에 가담했을지라도 결코 발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들하기는커녕 자랑삼아 말하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본래 고린도 도시는 성적 부도덕성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교도들은 성적 순결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서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교통함에 아무르케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정벌적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죄의 대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맺는 말

권징의 목적은 첫째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당사자를 얻고자 합니다. 즉 범죄가 아니라 회복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각종 죄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 하나로 교회 전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죄는 어떤 유행이든 한때같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혐오하고 애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죄인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돌아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장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57: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7(구주강림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04(10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5:6-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2021년 섬김위원 임명식 말 은 이
 설 교 Sermon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317(35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전 5:8)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사 65:17 인 도 자
 찬 송 101(106) 다 함 께
 기 도 김승록 집사
 성 경 시 51: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대림절의 기도” ... 설 교 자
 * 찬 송 17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I 부 김영식 권사
 성 경 삼하 1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다윗과 밧세바”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7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5.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6.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7. 609호 부서 모임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8. 7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01명	362명	1,863명	360명	1,481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2/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6일	헌 금	42,395,000	
	특별예배비		150,000
	급 여		13,706,290
	찬양운영비		200,000
	교회학교운영비		965,100
	교구운영비		2,160,000
	선 교 비		700,000
	행 사 비		4,500,000
	경 조 비		390,000
	출 판 비		210,000
	세금과공과		44,060,700
	복리후생비		97,600
	수도광열비		198,000
	차량유지비		2,115,760
	사무용품비		17,000
	소모품비		197,900
	잡 비		1,098,203
	환경유지비		255,200
	수선유지비		9,548,400
	식당운영비		544,400
	합 계	42,395,000	81,114,553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